

“불공정 심사” 줄이는 공천잡음

새정치 시·도당 공천 '시끌'

“무원칙 시당” 컷오프 후보 반발

도당 공천위 파행...심사 지연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공천심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당 공천관리위는 지난 4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를 발표했으나 컷오프(배제)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심사였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전남도당 공천관리위는 지난 6일 무안군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7일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각각 열었으나 양측의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당=공천관리위는 애초 지역별로 경선후보 2명을 기본으로 하고 2,3위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명을 경선후보로 선정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발표 결과는 3명이 후보인 지역

구가 대부분이었고 4명이 후보인 지역도 3개나 됐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광주시당이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3~4명을 경선후보로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4명이 심사를 통과한 지역의 경우 4위 후보자 탈락을 막기 위해 위원들이 답합을 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측근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반대 계파 후보를 2명씩이나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전남도당=공천관리위는 지난 6일 서류심사를 마치고 7일 오전 경선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계와 민주계 위원들의 충돌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틀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계 위원들은 개혁공천에 대한 큰 틀의 청사진과 합당정신에 따른 배려를 요구했지만 민주계에서는 경선을 주장하고 맞서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논란이 깊어지자 일부 위원들이 무공천을 주장하는 등 공천심사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새정치연합계 한 위원은 광주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계 위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개혁공천은 불가능해지고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혁신공천의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계 한 위원은 “우리에게 몇몇 지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것은 개혁공천도 아니고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제5선거구에 출마한 전경선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격심사 기준에 탈락할 후보는 구체하고 충분히 소명한 당비 미납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새정연의 공천은 한마디로 ‘특정인에 의한 특정한 공천’이라고 규정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임기 마친 여야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분관 앞에서 열린 고 박준규 전 국회의장의 노제가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임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손학규 “새정치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은 민주주의 후퇴”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에 윤정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은 7일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난,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700만 자영업자, 살 길을

찾는다'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오늘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정면 비판했다.

손 고문은 “독선적,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민주주의 위협의 첫째 요소라면 국민과 당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야당의 행태 또한 민주주의 후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으로 불리면서 ‘민주’가 빠졌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본산이자 우리 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의 전략공천은 분명히 잘못됐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광주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빼앗는 전략공천은 민주주의 정신, 민주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시도교육감

양형일 “1000억 규모 교육재단 설립”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정부·기업·자치단체·시민 등의 출연을 받아 1000억원 규모의 교육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재단은 무상 방과후학교, 무상 통학, 학교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기부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을 ‘명예의 전당’(가칭)에 현액하는 등 임기 내에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왕복, ‘눈맞춤교육’ 3대 공약 발표

김왕복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눈맞춤교육’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눈맞춤교육은 지난날의 출세우기·비자율성·불평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청사진으로 수업을 바꾸자·교실을 바꾸자·기숙사를 바꾸자”고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학점제 도입, 학급 지지 활동 보장, 평등한 기숙사 운영 등을 내놨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김영규, 선거대책 위원장 3명 선임

여수시장에 도전하는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이 7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옛 민주당 단일화 경선을 치렀던 송대수 전 도의회 부의장 등 3명이 선임됐다. 김 전 의장은 “여수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없는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 낮은 ‘시민설감’의 자세로 여수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임택 “노인복지정책 모델 동구에 필요”

광주시 동구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임택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동구의 노인 인구는 광주시 평균 10.3%를 크게 상회한 17.8%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광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의 모델을 동구에서 만들어 나가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알기쉬운 선거법

(12)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당내 경선이라도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문>정당의 당내 경선운동도 선거법 내에서 가능한가?

◇당원 100% 경선=비교적 자율적이다. 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에 따라 경선운동도 정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피켓·현수막 또는 모자·티셔츠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등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제한된다. 본 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거참여형 당내경선=법에 정해진 방법만 가능하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방식은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

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된다. 즉, 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은 ▲경선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지하철역 구내, 병원, 종교시설 등 제외) ▲정당이 옥내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후 경선후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제한자는 경선운동도 불가=미성년자나 공무원 등 본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

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선 후보자나 경선 선거인 등 매수금지=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이나 그 가족, 경선 후보자나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공천현금 등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허위사실 공표, 경선운동 방해 금지=이밖에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경선후보자나 공무원 등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적법하게 하는 경선운동을 방해하는 등 경선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본 선거에 준해 엄격히 처벌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NAVER 건강식품 **단비플라워** 늘려주세요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